

S1# 분장실

현감독과 소연 단 둘 뿐입니다

현감독은 드립 커피 내리며 문학적인 얘길 이어가고

소연은 경청하는 척 합니다

감독 일인 이역. 한 영혼으로 두 영혼을 연기하는 것. 도전적인 일이죠
처음 이 아이템 생각했을 때 저는 비로소 소연씨를 떠올렸어요
봄 눈처럼 순수한 캐릭터 연희와

소연 참 깨지기 쉬운 순수함이죠

감독 장마철 무좀처럼 추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보라

소연 참... 그렇죠...

감독 연희와 보라 두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배우.

소연

감독 (커피 내리며) 헤이즐넛 괜찮으세요?

소연 감사합니다

감독 세상물정 모르는 연희 역할은 너무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따뜻했어요. 제가 상상하던 연희가 현장에 왔더라구요

소연 연희는 현장 체질이죠

감독 그러면... 연희와 정 반대되는 희대의 악녀, 보라는 어떤 체질일까요?

소연 ... 감독님이 기대하셔도 좋을 체질이죠

소연은 커피를 훌쩍입니다

감독 (시계보며) 10분이면 보라가 되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소연 이따가 봐요 현감독님.

감독은 싱긋 웃고 커피 도구들을 하나 하나 챙겨 분장실을 나갑니다

소연은 분장실 문을 잠궈 버립니다. 조명대 아래 놓인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꺼냅니다

드르륵, 가방 열면 만신창이가 된 동생이 들어 있습니다

소연 나와 나와. 희대의 악녀가 되어보자. 대사 바뀌었으니까 빨리 외워

동생 뭐???

소연 빨랑 외워 빨랑!

소연은 동생에게 대본을 건내주고 바깥의 동태를 살핍니다

분주한 스텝들 소리

동생은 대본을 보다 “아 대사 좇갈네 진짜..”